2025 영아 문화예술 콘텐츠 개발 사업 공모 심의 총평

올해 처음으로 시행되는 <영아 문화예술 콘텐츠 개발> 사업에 많은 단체들이 관심을 가져주신 점에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신규 사업인만큼, 이번 심의가 향후 본 사업의 기준점이 될 수 있어 심의위원들은 이 점을 깊이 고려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리고 기존 모집 공고에서 제시한 내용을 토대로 아래의 내용을 더 살펴보고자 하였습니다.

우선, 공간성입니다. 영아를 위한 시설 기반을 갖추고 있는가, 현재 혹은 향후 영아 문화시설로의 개발 가능성이 있는가입니다. 이와 함께 내용적인 측면에서는 영아를 대상으로 한 문화예술 프로그램 수행 경험이 있거나, 혹은 경험이 없더라도 충분한 연구와 기획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가를 중심으로 심의했습니다.

대부분의 지원단체에서는 목표에 맞게 접근해 주셨으나, 영아 콘텐츠의 특성을 이해하고 있는 곳과 그렇지 못한 곳의 격차가 다소 있었습니다. 영아를 대상으로 하는 문화예술 프로그램은 각 개월(0 ~ 36개월)별 성장 및 발달 정도에 따라 콘텐츠의 개발을 달리 해야 하는 작업이 필수적입니다. 영아의 감각을 기반으로 하지만 콘텐츠의 예술성을 배제해서도 안 되며, 영아를 단순 관객으로 규정하기보다는 문화예술의 주체적 향유자로 접근해야 합니다.

본 사업을 계기로 영아 문화예술 향유에 대한 인식 및 접근방법에 대하여 다양한 도전과 발전이 계속되기를 기대하며, 본 사업이 더욱 확산, 정착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2025. 4. 1.

심의위원 방지영, 도상원, 박찬영, 엄동열